

## GLOBAL TREND

# 세계지방자치동향

### 미국

매사추세츠주 공유재산 정보 관리 시스템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

### 미국

119 신고센터에 AI 도입, 지방정부의 향후 과제는?

### 독일

독일 쉘레스비히-홀슈타인(Schleswig-Holstein)주 스마트 헬스(Smart Health) 프로젝트

### 한국

일하는 방식 변화, 행정업무 혁신: 광주시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



# 독일 슐레스비히-홀슈타인(Schleswig-Holstein)주 스마트 헬스(Smart Health) 프로젝트

## 배경

- ▶ 독일 최북단에 위치한 슐레스비히-홀슈타인(Schleswig-Holstein)주는 주정부 및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해, 여러 분야에 총 1,000만 유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
- ▶ “Digitales.SH” 주정부 디지털화 계획은 더 나은 학습과 업무, 농촌 지역의 디지털화, 지속가능한 현대적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
- ▶ 세부 프로젝트 중 하나인 ‘스마트 헬스(Smart Health)’ 프로젝트는 함부르크에 접하고 있는 도시지역인 노르더슈테트(Norderstedt)시와 농촌지역인 바트 슈바르타우(Bad Schwartau)계마인데 두 지역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보건 프로젝트로, 총 27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었음

## 사람을 중심에 두는 스마트 헬스

- ▶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는 지방을 위한 디지털 개념을 개발 및 적용하여,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 예방 및 증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음
- ▶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는 새로운 앱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,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식이며, 사람을 중심으로 고려하면서 각 지자체의 디지털 수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
- ▶ 프로젝트에는 주정부의 보건부 외에도 승인 당시 농촌 지역을 담당했던 내무부, 슐레스비히-홀슈타인 주정부, 여성단체 등과 같은 여러 대학 및 단체, 의료계, 과학계, 자금 지원 기관 및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조율하는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중요시하였음
- ▶ 프로젝트에 참여한 노르더슈테트시와 바트 슈바르타우계마인데는 물론 다른 인근 농촌 지역의 계마인데에도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. 또한 이러한 공간 개념의 지자체 간 접근 방식은 독일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우수한 사례가 됨

##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 디지털 솔루션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

- ▶ 슐레스비히-홀슈타인주 의회는 스마트 헬스 관련자들에게 디지털 솔루션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, 쉽게 접근 가능하고, 즉각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조언하였음
- ▶ 또한 주 의회에서는 지역이 원한다면 건강 멘토 교육, 건강 단말기 설치, 서비스 개선 등 지역 주민들이 만남(MarktTreff)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

## 스마트 헬스 - 지역의 여성과 함께

- ▶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긴밀하게 참여한 대상 그룹 중 하나는 지역의 여성단체인 슐레스비히-홀슈타인주 여성협회(LandFrauenVerband Schleswig-Holschtein)로, 약 160개의 지역 협회에 30,000명의 여성이 속해 있음
- ▶ 이 협회는 '디지털 참여'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'디지털 멘토'를 양성함
- ▶ 헤르조그툼(Herzogtum) 지역의 협회 회원들은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강화를 위해 연방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
- ▶ '디지털 도로(Digitaler Weg)'라고 불리는 비대면 소통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연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
- ▶ 여성들은 '건강 유지'를 위해 지역 협회의 디지털 멘토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디지털 지원을 통해 더 발전시키고자 함
- ▶ '보다 더 스마트한 건강'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회 재단(Stiftung Digitale Chancen)과 함께 2023년 봄에 시작되었으며, 여성들을 확대 재생산자로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▶ 지역 공공건강보험사인 AOK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, 디지털화의 강점을 활용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 혜택을 찾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
- ▶ 플랫폼, 고객, 단말기의 삼박자를 갖추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망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, 독일 내 다른 지역 및 여성 단체에서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
## 디지털 건강 역량을 촉진하는 스마트 헬스

- ▶ 독일 연방경제부 및 연방가족부 산하의 디지털 기회 재단(Stiftung Digitale Chancen)은 2023년 내에 정규직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‘스마트 헬스’에 익숙해지도록 5개의 모듈 시리즈를 제공하고자 함
- ▶ 이 모듈은 ‘스마트 헬스’로 실제로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입문적인 질문부터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여 개인 건강 데이터 수집 및 전자 환자 기록과 같은 원격 의료를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까지 참가자들에게 안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
- ▶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, 특히 디지털 취약 계층인 노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, 실용적인 디지털 일상 도우미가 활용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
- ▶ 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단체 및 협회와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,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가 이해관계자들을 네트워킹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
- ▶ 예방적 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, 디지털화의 결합은 지역에 지속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기에 프로젝트 대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전략 요소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
- ▶ 재단은 건강 멘토와 건강 플랫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으로,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과 관련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

## 회복력 있는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헬스

- ▶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질병 치료의 개념에서 나아가 보다 선제적으로 각 개인의 건강 역량 강화 및 개인 건강 데이터에 대한 예방적 활용이 필요하며, 이는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됨
- ▶ 이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시민과 지역 보건기관이 서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건강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
- ▶ IT분야의 지방공기업인 빌헬름텔(Wilhelm.tel)은 지난 20여 년간 건강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해왔으며, 프로젝트 시작 이후 지역의 보건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건강 데이터의 공동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음
- ▶ 이러한 노력들은 보건분야와 IT분야, 지역 대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▶ 노르더슈테트시는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를 도시 전체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인 “노르더슈테트 GO!” 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



- ▶ 지역 보건 서비스,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 디지털 위치의 필요성은 이미 스마트 시티 전략 개발 과정에서 참여 형식으로 표현된 바 있음
- ▶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 단말기(Gesundheitsterminal)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시 디지털 전략 통합이 가능해졌음
- ▶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노르더슈테트는 2022년 하젤호르스트 연구소에서 발표한 전국 스마트 시티 순위에서 400개 이상의 조사대상 도시 중 8위에 랭크되기도 하였음
- ▶ 의료 정보와 같이 과급력이 크고 규제가 심한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공동 대응이 성공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기반이 됨. 이에 시 행정부는 이해관계자와 보건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,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의료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<sup>1)</sup>를 실시하기도 하였음

## 시사점

- ▶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는 개인 건강과 의료정보의 공동 이용 및 디지털화에 관한 것과 더불어 고령화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건강보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
- ▶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한 독일에서 지역사회의 건강과 회복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완화를 시도했다는 점은 개인정보보호라는 ‘사적의 이익’보다 ‘공공의 이익’을 우선한 우수사례로 손꼽힘
- ▶ 이러한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 사례는 독일의 보건 및 의료시스템이 주정부 단위의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부문이 약한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음
- ▶ 그러나, 「지역보건법」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의 데이터를 예방 목적 등에 한해 지자체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,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일부 지역에 한해 확장된 의미의 ‘스마트 헬스케어’의 시범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

1)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(Bundesdatenschutzgesetz)은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해 특별한 범주의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으며, 예방의 목적,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 등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

---

장인성 통신원

drong85@naver.com

독일 아헨공과대학교 (RWTH Aachen University)